




참 자유로 인도하는 문
심 자 가

황순원, 김소진, 김지하
김영하, 김지우, 김지영

 동심 나침반社

당신이 이 글을 읽을 때, 어떤 혼란 중에 빠져 있는지도 모른다. 사람들이 당신의 기대를 저버리고, 하나님도 당신께 도움을 주시기는 너무 멀리 떨어져 계시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한다. 당신은 당신의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사랑을 느끼며 성장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인정하거나 사랑해 본 적이 전혀 없는지도 모르는 것이다.

삶에 대처해 나가는 가운데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부적응성은 온전한 우울증으로부터 자살하고 싶은 생각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하여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파국에 이르거나, 회복할 수 없을 지경까지 이르게 될지도 모른다. 당신이 약간의 절망감이나 극히 궁벽한 상태에 이를 때, 이 메시지는 당신의 상황에 도움말이 되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을 사랑하셨기에 하나의 인격체-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셔서, 당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으며 풍성한 승리의 삶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을 통하여 내려 주셨다. 지금 당신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당신의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조건을 만족시켰다는 것을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의 하나다. 당신이 이를 믿지 못한다면, 이 단순한 메시지와 예시 도표가, 당신이 그의-주 예수 그리스도의-생명을 받아들일 때, 당신을 변화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 당신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믿은 적이 있지만, 신앙 생활 속에서 아직도 승리의 길을 찾아가야 하는, 분투하다가 패배당한 신자인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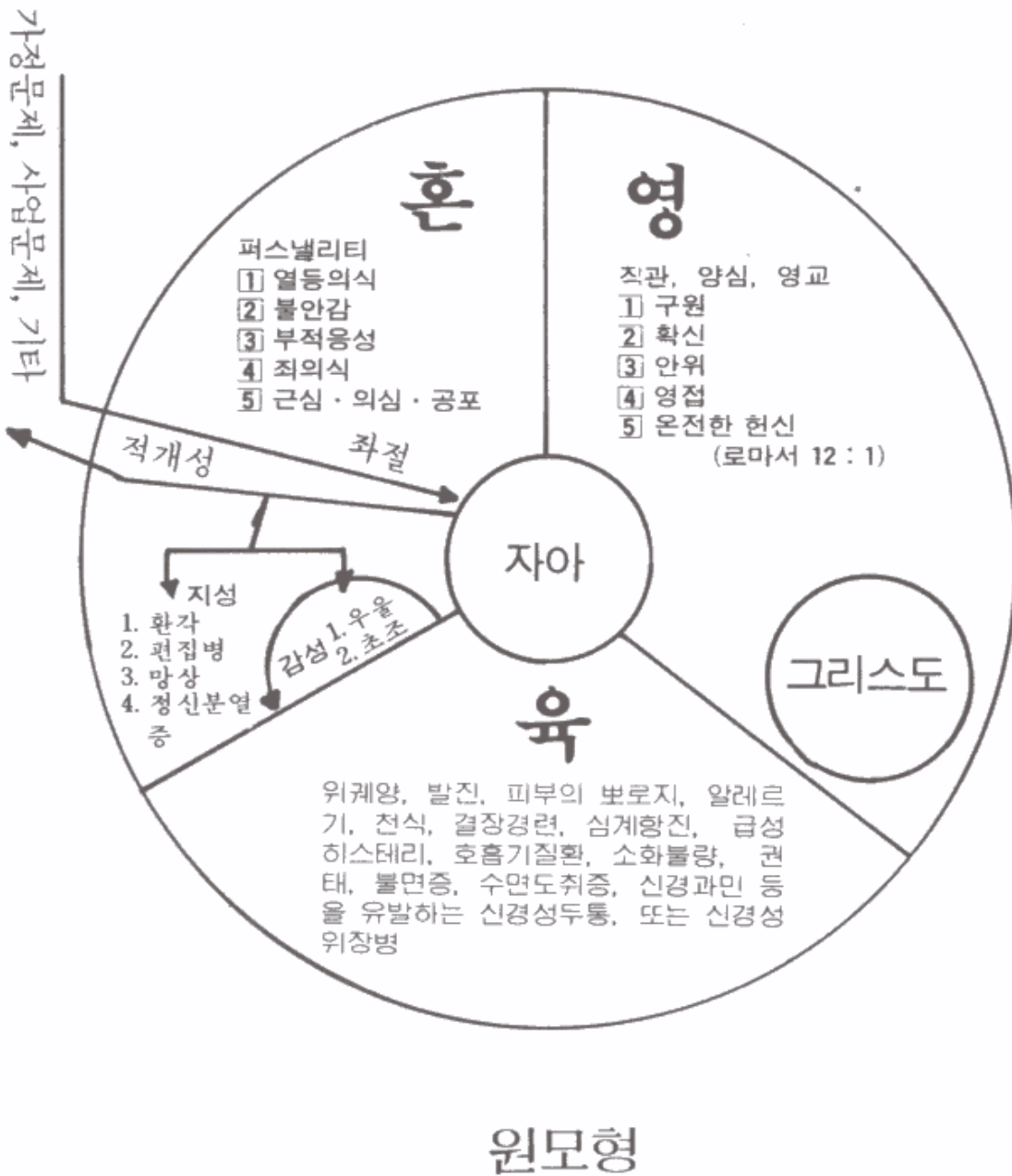
이러한 상황들 중의 한 부분이 당신의 환경 조건을 설명해 준다면, 성경을 펴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이 진리를 계시해 주시도록 기도하며 다음의 아이디어들을 연구해 보기 바란다.

1] 당신의 계획

바퀴모형은 인간을 영·혼·육의 3부분으로 구성된 존재로 파악하고 있다(살전 5 : 23). 육을 가진 우리는 감각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과 교류한다. 혼 또는 퍼스낼리티는 지성과 의지와 감성의 기능들로 이루어져 있다. 혼은 우리가 상대방과 서로 관련을 맺을 수 있게 해 준다. 영은 우리가 변화받아 다시 태어나고 우리안에 성령께서 거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능력, 한계, 환경을 초월할 수 있게 해 준다.

영은 사탄의 계보에 속하는(선모형 참조) 아담에게 연결되거나, 하나님의 계보에 속하는 그리스도께 연결되거나 둘 중의 하나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리고 그의 본성을 나누어 가진 자로서 이 땅에 태어났다. 이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에 대해 죽었으며 사탄에 대해 살아 있음을 뜻한다. 우리는 그릇된 계보에 속해 있는 것이다! 우리의 생명이 첫째 아버지인 아담에게서 나와서, 끊어지지 않은 연결대에 의해 그에게로 되돌아가므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우리가 사실상 그에게 속해 있었던 셈이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으로 태어나기 전부터 죄인이 되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는 단지 자연 발생적으로 우리 안에서 나오는 행위를 하고 있을 따름이다(롬 3 : 23).

아담에게 속하여 거기 머무는 모든 삶은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롬 6:23), 마침내 지옥에서 끝난다.



적으로 거듭남으로써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상태다.

2] 당신의 필요

바퀴모형에서 “구원”(1)이란 말은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야 함을 의미한다. 오직 이렇게 하여야만 우리는 아담에 속한 삶을 떠나서, 선모형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영생 곧 그리스도의 생명 속으로 태어날 수 있다 (요3 : 3).

영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그릇된 삶에 속해 있는, 타고난 죄인이며 그 불가피한 결과로써 죄를 지은 자임을 깨닫고 고백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 영접해야 한다.

영적으로 거듭남에 있어서, 믿음으로 자신들의 영에 그리스도의 영적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의 영이 된다 (고전6 : 17). 유혹에 대해 승리하고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체험하려면, 자신의 구원을 확신해야 한다.

“확신”(2)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에 기초를 두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기껏해야 바람같이 사라져 버리고 만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머리로 알고 있지만, 자신이 구원 받았음을 절실히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순전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어린 시절에 따돌림을 당한 결과 생겨난 정서적 갈등으로 인하여, 그 사람의 감정은 성경에 묘사된 사실내지 실제 세계의 사실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셔서 손상받은 정서를 고쳐주시기 전에는, 우리가 사물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사물의 실재와 다를 수 있다.

오래된 신자든지 새 신자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안전하고 영원한 영적관계 속에 들어와 있으며, 이러한 “안전”(3)에 의지하고 이를 향유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자신이 그리스도를 영접했음을 아는 신자는 많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영접받았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체험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들의 신앙 생활을 통해서 영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엡 1 : 6), 인간적인 기준 위에서 또다시 영접을 얻어야 하며 하나님의 “영접”(4)을 받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다. 모든 신자는 이미 영접을 받았는데도, 믿음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적다(고후 5 : 21).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헌신하는 “온전한 헌신”(5)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적다. 이

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하도록 용납해 드림으로써, 우리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적다는 뜻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도록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를 귀히 여기신다. 우리가 이러한 결단을 하고 나면 때때로 어려운 환경에 빠져들게 된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통제하시게 되면, 우리의 통제권은 마땅히 포기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만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삶에 대한 통제권을 내놓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환경이나 인물은 때때로 그 자체로서는 영적이지만은 않다.

그것들이 때때로 까닭없는 고통을 가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러한 **고난**도 사용하신다(벧전 2:20-21/ 빌1:20~23). 실제로 고난을 당할 때는 이것이 결코 기쁨의 원천으로 여겨지지 않지만, 이는 우리가 바라는 **거룩함**을 낳게 하는 도가니다(빌3:10 / 히12:11).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다(롬 8:29). 이러한 과정은 고난을 수반한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로마서 8장 28절의 “모든 것”은 그 자체로서는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니며, 다만 과거를 회고할 때 아름다운 일로 보일 따름이다.

3] 당신의 내적 갈등

바퀴모형의 중앙에 있는 “S”자는 자아에 의해 통제되는 삶, 또는 “육”(flesh) (KJV)을 가리킨다. 육은 그리스도인의 전 생애를 통해, 대부분의 신자들의 삶에 있어서 우세한 힘을 나타내고 있다. 육은 소극적 방법으로 또는 적극적 방법으로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통해서, 스스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개인에 따라 상이한 형태들을 취한다.

자아 도취적인 삶 또는 육적인 삶을 영위할 때, 돈·물질·성공·명예·성·권력 그 밖의 수 많은 것들이 충동을 일으켜 마음의 중심을 차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육”은 신자가 자신의 능력으로 신앙 생활을 하려고 하는 노력에 불과하다.

“육”이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만큼이나 심각한 문제다.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 생활 대신에 우리 자신이나, 다른 어떤 것들로 대체할 때에는 우리의 삶의 보좌에 그 무엇을 놓든지 그것은 **우상**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육의 문제를 엄중하게 다루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이 자신의 상황을 감당하기가 어려움을 깨닫고, 자신을 포기하며 자아 중심의 생활을 그리스도 중심의 생활로 바꾸는 일에 관심을 갖기 전까지는, 그 자아 중심적 삶이 **문제 해결에 무능**

력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신다.

자아(육)가 우리를 지배하는 한, 바퀴모형에서 보듯이 “혼”(Personality)의 부분에 묘사된 갈등이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나이가 들고 책임이 중해짐에 따라 이러한 갈등은 악화될 수도 있다. 때때로 심리적으로 잘 적응된 자아 중심적 생활은 인생의 대부분에 걸쳐 필요한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게 해 주지만, 그 결과는 결코 일의 성취를 이룰 수 없다.

양심의 가책(실제적인 가책과 상상의 가책 모두)과 심리적 결함이 결합되어, 자아 중심적인 삶에서 여러 가지 정도의 좌절을 야기시킨다. 그러한 좌절감은 치유되어야만 한다. 어떤 사람은 폭력-육체적 혹은 말로써-의 형태로 이를 쏟아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보복을 두려워한 나머지 상대방을 더욱 억압하기도 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닥치는 온갖 문제들과 괴로운 문제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림으로써 분노와 좌절을 억누르기도 한다.

무슨 이유로든지 적개심과 좌절감이 억압당하게 되면, 지적 심성과 정서 모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내면으로 스며들어간 적개심이나 분노는 종종 정서면의 우울증 내지 조바심을 야기시킨다. 어떤 사람은 현실을 여러가지로 왜곡하거나 거부하기 위하여 자신의 지성을 이용한다. 이는 자신의 실제 문제 즉 자아 중심적 생활에 부딪쳐야 할 필요성을 회피하게 해 준다.

그러나 심리적인 갈등 문제가 치유책이 없이 질질 끌려갈 때, 이는 모형 도표에 예시된 바와 같은 육체적 질병을 초래한다. 이 육체적 병은 실제로는 좀더 깊은 문제-자아 중심적 삶-를 나타내는 징후다. “혼”의 영역에 그려진 심리적 문제들도 마찬가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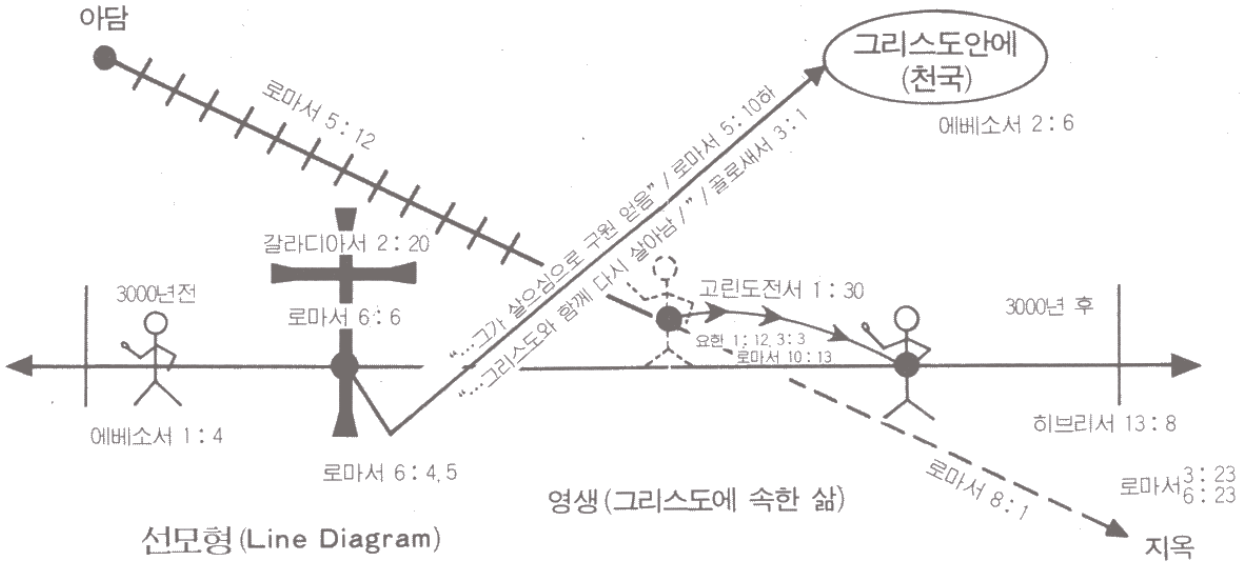
4 당신의 구원

이러한 심리적 육체적 증상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아 중심적 생활을 물리치심으로써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시는 지를 바라볼 때 사라지기 시작한다.

선모형은 “사망에서 생명을 얻음”의 원리-내적갈등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를 보여준다.

수평선은 그리스도의 삶인 영생을 나타낸다. 영원함이란 그 말대로 시작도 끝도 없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시간의 한계를 초월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므로, 이제까지 계셨으며 앞으로도 계속 계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삶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히 13:8).

선 왼쪽에 나타나 있듯이 그리스도는 “육신이 되셨으며”(요 1:14), 33년 동안 인간의 육신을 입고 사셨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지낸 바 되셨다가 삼일 만에 사망에서 부활하셨다(고전 15:34).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계속해서 살아 계신다(히



7:25). 신자들에게 영생이란 현재와 미래의 실제일 뿐 아니라 영원한 과거도 내포한다는 사실에 주목해 보라.

우리가 거듭나기 전까지는(요 3:3),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영생-안에 있는 것이 아니며, 영적으로 죽은 아담에게 속해 있다. **빛금 선상**에서 울타리처럼 표시된 우리 조상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빠졌을 때, 우리도 빠질 수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육체적으로 우리의 삶은 아담에게서 시작됐으며, 그러기에 아담에게 발생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우리도 죄를 범한 것이다. 아담이 죽을 때(영적으로) 우리도 죽은 것이다. 마치 우리의 증조부가 자식없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죽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영적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격리를 뜻하기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영적으로) 죽은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뿐만 아니라 생명을 필요로 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그리고 그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셨다(요 10:10).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은 이미 이 정도는 알고 있다. 그렇지만 다음 사항을 아직 모르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믿는 사람에게 있어 육신의 죽음은, 이 세상에서 죄악을 대하면서 사는 삶으로부터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

게 사는 삶으로 가는 대문이다. 마찬가지로 또다른 형태의 죽음은 아담의 죄된 삶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문이다. 사람이 “거듭날” 때, 그는 이 순간 죽는다. 그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태어나지만, 동시에 아담의 생명에 대해서는 죽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거듭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으로 들어 오시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또한 우리는, 그의 생명-영생-에 “동참 하는 자”가 된다. 로마서 6장 3절에 의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그의 생명) 안에서 세례(침례)를 받을 뿐 아니라 그의 죽음 안에서 침례(세례)를 받는다. 우리는 두 가지 반대되는 생명, 즉 아담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생명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다.

5] 당신의 실제모습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는 그가 십자가 상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속량해 주셨음을 뜻한다. 그러나 그 뜻은 더욱 포괄적이다. 즉 미래 뿐 아니라 과거 속으로도 영원히 확장되는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도 의미한다. 달리 표현해서, 우리는 아담 안에 있는 역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역사와 바꾸는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족

보”를 물려받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함으로써, 우리는 그의 죽음, 장사, 부활, 승천 그리고 천국 보좌에 앉으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롬6 : 3 - 6 / 갈2 : 20 / 엡2 : 6). 그 분은 한 가지 생명만을 갖고 계시며, 이 생명은 바로 우리가 새로 태어날 때 받는 생명인 것이다(요일5 : 11-12).

우리가 개인적인 믿음의 체험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깨닫기까지, 우리는 자아를 위해 살아온 과거의 삶에서 배운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여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려고 할 것이다. 아담 안에서 가졌던 우리의 과거로부터 초래되는 갈등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패배시키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 및 부활과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때, 그럴 때만 우리는 진실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수 있으며”(롬6 : 4 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5 : 17) 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이다. 십자가로의 길은 십자가 그 자체와 마찬가지로 **고난의 길**이다.

당신의 내적 갈등과 계속되는 패배에 지쳐 있는 생활을, 믿음에 의해서 종지부를 찍지 않겠는가? 당신은 당신의 모든 것에 대해 죽음으로써 주님의 모든 것에 대해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가? 이렇게 하는 것은 자아 중심적 삶을 그리스도 중심의 삶과 바꾸는 것이며 성령에 이끌려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육을 좇아 사는 삶을 계속하며, 계속적인 갈등, 고통, 패배로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다.

6 당신의 구원을 위한 기도

당신이 고집대로 살기 때문에 초래된 고뇌에서 그리스도께 그의 뜻대로 하시도록 당신을 맡겨드린다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자유케 해드릴 것이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를 당신의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해 본 적이 없다면, 당신이 맨 먼저 할 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영적인 거듭남을 주심으로써, 당신을 새롭게 지으시도록 하는 일이다. 당신이 다음과 같이 정직하게 기도할 수 있다면 **당신은 거듭날 수 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저는 제가 죄인인 것을, 그리고 아직도 아담의 삶에 속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저는 죄를 범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저의 죄를 위하여 제 대신에 죽으시도록 당신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 살고 계심을 믿으며 이제 주님을 저의 구주로 제 마음에 영접합니다. 저의 모든 사람됨과 제 모든 것 그리고 저의 미래를 주님께 드립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기 위

해 저의 죄와 저의 이기적인 삶을 돌이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7] 당신의 자기 확인의 기도

당신이 “구원의 기도”를 했다면, 당신은 이미 거듭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자기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이다(요1:12).

이제, 당신이 지금 구원의 기도를 드렸든지 과거에 드렸든지 “자기 확인의 기도”를 드리면 당신이 그리스도의 승리와 평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이다. 이 기도가 효과를 보기 전에 당신은 진실로 자아 중심적 생활에 대해 염증이 나야 한다. 당신은 자신의 힘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하며 당신의 삶에 대한 통치권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당신이 이런 상태라면 다음과 같이 기도하라.

“아버지시여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제게서 아담에 속한 삶을 제하시며, 그리스도의 삶에 저를 접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지낸 바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으며, 주님의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앓은 것을 믿습니다. 이 순간부터 주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 계시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신은 죄에 대해 죽었으며 주님에 대해 살았음을 깨닫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실을 잊고 저의 인간적인 지혜와 힘으로 주님을 위해 살려고 발버둥칠 때 성령께서 저를 온전히 주님의 의의 도구로 드리오니, 저의 어떠한 부분도 죄를 위하여 사용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와 그의 삶이 제게 살아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통해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